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등 17건 확인... '성고문' 까지 했다

국방부 참여 '정부 공동조사단' 조사 ... 내일 기자회견
가해 군인 인상착의·계급·부대 등 진상조사위에 넘기기로
사례 공개 검토 ... 집단 성폭행 여고생 포함 땀 큰 폭발력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행 대부분이 다수의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진 '집단 성폭행'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9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5개월 동안 조사에 나서 당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참여 등의 이유로 당시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도 당시 조사관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동조사단은 그동안 광주시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자료와 5·18 재단 등 5·18 관련 기관 자료, 국방부 자료,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성폭

행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하면서 구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행 피해자들로부터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계급, 부대 및 기관 표시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아 5·18 당시 부대 및 기관의 주둔 여부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복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공동조사단은 성폭행 가해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데다 조사 시간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공동조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오는 3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히고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되는 진상조사 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치 않은 경우나 제한된 시한에 의해 판단을 보류한 성폭행 사례들도 진상조사위에 함께 제출한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성폭행 사례들을 일부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집단 성폭행 사례에 여고생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면 국민의 공분이 폭발하면서 진상 규명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을 밝혀야 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이 넘게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합동조사단의 성폭행 조사 결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다. 가해자들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된다. 또 공소 시효 문제 등으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도 있는 상황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성고문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며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하며 이는 당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준비 상황 점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를 찾는 마스터즈 위원회 위원들이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을 둘러 조직원으로부터 마스터즈대회 준비상황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사각형 아파트 도시 '광주다움' 어디에 ...

도시 건축 품격을 높이자

〈1〉 광주, 이대로 좋은가

예향 광주의 도시 공간이 고층 사각형 건축물물 가득차고 있다. 유사한 디자인의 고층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광주 내외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획일적인 회색빛 도시로 급변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뒤늦게 광주시가 '광주다움'을 강조하며 건축물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아트폴리스(Art Polis, 예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일보는 30년간 아트폴리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토대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획일적 건물 정체성 안맞아

새 도시건축 방향 모색해야

광주에는 지난해 말 현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26곳에 170개동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22곳 160개동에 달한다. 재개발·재건축, 도심 외곽의 택지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들어 서고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30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그 수는 200개동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고층 아파트들이 모두 사각형의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축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건축물이 곳곳에 세워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정체성과 문화도시 이미지 저해, 주변 중저층과의 부조화, 인구 집적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도시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사들 역시 제약할 수 없다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이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고층아파트, 주상복합 등만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값싼 디자인의 반복적 적용은 건축사들의 소득 감소, 건설업체와의 종속적인 관계 형성 등으로 이어졌다. 한 건축사는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서 디자인 및 설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고 있는 곳이 광주"라며 "디자인에 대한 비중이 낮고, 의뢰하는 건설업체 역시 높은 수준의 디자인 및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하철 10명중 3명 '무임승차'

노인 등 교통약자 대부분 ... 손실금 정부 보전율

광주 도시철도를 타는 시민 열 명 중 세 명 이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도시철도가 '사회적 약자의 발'이 되고 있는 셈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혜택이 더해져 전국에서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비율은 광주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무임 승차 손실 금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

2017년 광주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총 9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임 승객은 3000만명으로 32%를 차지했다. 무임 승객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이었으며 장애인, 유공자가 뒤를 이었다. 무임 승객 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가운데 광주가 가장 높다. 전국 평균 무임 승객 비율 16%와 비교하면 배나 높을 수 있다. 이 기간 무임 승객으로 인한 손실금액은 372억원에 달했다.

올해 광주시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요청한 국비는 85억원이다. 손실금액도 2013년 70억, 2014년 71억, 2015년 70억, 2016년 76억, 2017년 85억 등 증가 추세지만 이와 관련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광주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실금액은 올해 89억원, 내년 94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스피 2000선 붕괴

22개월만에 ... 투자자 '패닉'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5000억원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주식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미흡했다. 증시가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29일 전 거래일보다 31.10포인트(1.53%) 내린 1996.05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7일(종가 1991.89)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는 연속 연중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가며 1606억원 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도 487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은 6361억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3.37포인트(5.03%) 내린 629.70으로 장을 마쳤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상생상회
1-MARKET-U

상생상회

서울, 지역과 만나다

서울특별시

- 일 시 2018년 11월 3일(토) 12:00
- 시범운영 2018년 10월 27일(토) 11:00 부터
- 장 소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안국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청년농부 기획전, 플라마켓, 먹거리 체험, 교류모임, 지역축제전시홍보

상설 및 기획판매공간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판매 공간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합니다.

지역 아카이브 공간

지역 홍보물, 공연 및 축제, 여행, 도서 등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매달 새롭게 만나는 공간입니다.

쿠��클래스 '서로맛남'

지역농부-요리사-서울시민이 향토재료를 보고, 만들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복합식문화 창출 공간입니다.

오픈스페이스

지역, 농촌,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개인, 단체의 컨퍼런스 및 행사,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합니다.